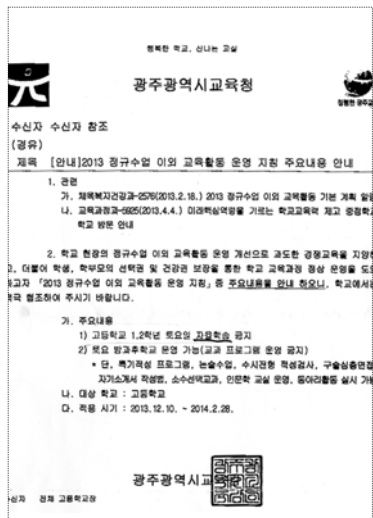


“토요일엔 공부하지마” 문 잠그는 광주교육청

일선 고교에 ‘자율학습 금지’ 공문 보내 건강권 보장 이유 겨울방학 ‘교실문 폐쇄’ “성적 푹뚝 떨어질 것” 학부모·학생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토요일 교실문을 다시 잠갔다. 최근 광주지역 고교생 학력 저하 추이에 일선 학교에서는 비상이 걸렸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과도한 경쟁을 막고 학생 건강권을 보장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

공문에는 ‘과도한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더불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및 건강권 보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도모하고자 고등학교 1, 2학년 토요일 자율학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모든 고교에 반발하고 있다. 학교가 공부를 시키고 싶어도 교육청이 되레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교는 내년에 입시를 치를 수

험들들로 겨울방학 동안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교과별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데 교육청이 이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2 겨울방학 동안 부족한 분야를 채우지 못하면 3학년 진학해서 따라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3학년 1학기부터 입시체제로 전환해 교과 수업보다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 체계를 잡지 못하면 입시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부모 선택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학생·학부모 대다수는 토요일 자율학습을 원한다는 주장이다. 토요일 자율학습 시행에 앞서 B 고교가 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희망자 조사를 한 결과, 전체 340명 중 275명이 토요일 자율학습을 원했다는 것이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8분 해질 17시 25분 달돋이 22시 49분 달질 10시 56분

낮에 추위 풀려
아침에 추운 가운데 대부분 지역 맑았다.

광주	맑음	-2/6℃
목포	구름맑음	-1/5℃
여수	맑음	-1/6℃
나주	맑음	-4/6℃
완도	맑음	0/6℃
구례	맑음	-3/6℃
강진	맑음	-4/6℃
해남	맑음	-5/6℃
장흥	맑음	-5/7℃
순천	맑음	-2/7℃
영광	구름맑음	-2/5℃
진도	맑음	-2/6℃
군산	맑음	-1/4℃
남원	맑음	-5/5℃
혁신도	구름맑음	3/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갠기수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날씨						
최저/최고	-3/7	-3/8	1/7	-1/3	-2/4	-2/5

倒行逆施

교수들 올해의 사자성어 박근혜 ‘퇴행 정치’ 비유

교수들이 올 한해를 특징 짓는 사자성어로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의 ‘倒行逆施(도행역시)’를 뽑았다. 교수신문은 지난 6~15일 전국의 교수 62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2.7%(204명)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도행역시’를 선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청앞 스케이트장 북적 2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광장에 개장된 아이스스케이팅장에서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아이스스케이팅장은 내년 2월13일까지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시간당 1000원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 C형간염 환자 많다

바다 근처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C형간염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국내 C형간염의 진단유병률과 위험요인’ 논문에 따르면 어업종사자, 해안가 거주·근로자의 C형간염 진단유병률이 높았다.

부산은 C형간염 진단유병률이 인구 10만명당 지난 2002년 165명에서, 2011년 249명으로 상승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남은 지난 2002년 131명, 2011년 228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자(환자대조군) 234명, 건강검진자(건강대조군) 234명을 비교해보니 다른 두 집단보다 환자군에서 어업 직업 이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또, 해안가 근로 또는 거주경험, 향만 관련 종사자 접촉빈도 등도 환자대조군이나 건강대조군보다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질병관리본부, 인구 10만명당 유병률 전남 228명, 부산 이어 두번째로 높아 한편, C형 간염은 감염자의 80~90%가 만성간질환을 앓고, 5% 미만은 이로 인한 간경화나 간암 등으로 사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C형간염 진단유병률은 2002년 인구 10만명당 71명에서 2011년부터는 인구 10만명당 116명 가량으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남뉴스



전남유아교육진흥원이 지난 20일 순천시 서면 옛 서산초교에 문을 열었다. 이날 열린 개원식에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조충훈 순천시장·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아들의 꿈과 지혜 키워주자”

전남유아교육진흥원 개원 150여명의 유치원생이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전남특색관, 풍선타고 세계여행, 4D방, 물의 나라 등 27개 체험학습 공간으로 구성됐다. 진흥원은 유치원 교원들의 연수와 연구 지원,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학부모 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유치원 평가 등을 시행한다. 김정경 원장은 “유아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창의·인성 발달 교육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유아·교직원·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유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학생언어문화개선’ 캠페인 kfta.korea.com

말은 자신의 얼굴입니다!

‘바른 언어습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바른말, 고운말 사용은 사람과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욕설, 차별적인 말은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칭찬과 용기를 주는 말은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시작은 ‘욕설’ 등 언어폭력입니다. 바른말, 고운말만 사용해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학부모와 선생님! 학생들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을 줄이고 불건전한 언어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자녀, 학생들과 함께 시청 및 활용해 주십시오!

학생언어문화개선캠페인 홈페이지 : www.kfta.korea.com

* 각종 다류멘터리 교육동영상 및 수업자료 등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올바른 교육 훌륭한 선생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 교원단체총연합회
전남 교원단체총연합회